

金총리, 광주 찾아 地選 평가 언급하며 “黨 혁신해야”

黨 복귀 앞두고 鄭대표와 차별화 시동 “최초로 긴장해야할 시기 들어가” 진단 핵심 지지 기반 호남 전폭 지원도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만간 ‘여의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양면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민주당이)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라고 지적하며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다. ▶관련기사 4면

집재적 당권 경정 주자인 정 대표를 중심으로 치러진 지방선거가 ‘미완의 승리’로 끝난

상황에서 김 총리가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 “당의 승리 공식을 재검점해야 한다”면서 차별화에 시동을 건 것이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C ‘뉴 호남 포럼’에 참석, ‘호남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선거가 끝난 뒤 어떤 분들은 승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한다”고 지방선거를 화두에 올렸다.

이어 김 총리는 “대통령 중심 리더십에 뒤떨어진 국정 기대치가 선거 결과로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관점에서 (결과가) 충분치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승리나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는 두 가지의 평가가 있는 것 같

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여당과, 정부·여당의 든든한 기반이 돼온 호남이 함께 지금까지의 승리의 공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며 “김대중(전)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르는 승리의 공식은 성장과 민주주의의 결합,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총리는 “다시 황금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선거 이후 생기는 긴장을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 두 가지 노선을 확실하게 다시 틀어줘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노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호남에서 해주실 일”이라고 호남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더 이상 잘하라고 해도 하기 어려

울 정도로 대통령이 탁월하게 이끌고 있지만 그 길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선거나 이런저런 일로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헤쳐 나가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최초로 우리가 긴장해야 할 시기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혁신의 핵심은 민생 실용 확장 노선과 성장과 민주주의를 결합하는 것이며 정치적 힘을 모아주면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의 광주 방문은 당권 도전을 위해 조만간 총리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김 총리는 호남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는 민주주의의 문제였지만 이제 호남이 지방주도 성장과 K-황금시대를 만드는 데 중심과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다시 해석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매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기회가 열렸고 그 이상의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도 최대한의 규제 혁신과 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재정 기자



강기정 광주지사가 지난 6일 광주공원 현충탑 앞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6일 장흥군 예양공원 충훈탑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도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엄수

姜지장 “보훈·광주발전 주춧돌 이어지길” 金지사 “통합특별시, 보훈특별시로 도약”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을 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보훈의 가치를 되새겼다.

광주시는 지난 6일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수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장숙남 광주지방보훈청장, 양부남·정진욱·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군택 국회의원, 보훈단체, 4·19단체, 5·18단체, 전물군경유족, 상이군경, 보훈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은 묵념, 헌화, 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낭독, 추모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위패봉안소 분향 순으로 진행했다.

오전 10시에는 전국에 울려 퍼진 추모 사이렌에 맞춰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묵념한 후 헌화와 분향을 했다.

강기정 시장은 “선열들과 호국영령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 보훈은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해 공공체를 굳건히 지속시키는 일”이라며 “지난 4년 동안 보훈 정책과 광주 발전을 위해 놓은 주춧돌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지난 6일 장흥군 충훈탑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추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성 장흥군수, 고승범 제3함대사령관, 전남 지역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도지사 표창 수여, 추념사,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식전에 열린 팸페라 그룹 박맨싱어즈의 추모공연 ‘내 영혼 바람되어’, ‘비목’ 등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참된 보훈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나라는 진실에서 시작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보훈특별시가 돼 애국이 평생의 자부심으로 남고 그 명예가 대를 이어 존경받는 곳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투표지 사태’...노태약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 설치키로...사무총장도 사의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면 ‘민행배號 통합특별시’서 계속

특정 청사에 기능을 집중하는 대신 어느 지역 청사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별 권한 배분과 전산·민원 시스템 통합, 의사 결정 구조 정비, 시민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역별 핵심 사업 선정과 재정 배분 기준,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수준 통일 등도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시민주권 실현 역시 통합특별시 성공 여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민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시민주권정부와 시민참여형 정책 설계, 현장 중심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민주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조례 제정, 권역별 사업 조정 등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는 점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형 개발사업과 공공기관 배치, 교통망 구축, 복지 기준 통일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할 공식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다.

통합 초기에는 각종 민원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민주권은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통합 과정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결국 성장통합, 균형통합, 시민주권은 각각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조직, 예산, 권한 배분 문제로 연결된다.

성장 전략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특정 지역 편중 논란에 직면할 수 있고, 균형발전 역시 성장 동력 없이 추진될 경우 재정 분산에 그칠 수 있다. 시민주권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기 어렵다.

이에 따라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구상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구체화하느냐가 초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당 회사는 2026.06.05.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8일
강현 주식회사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대양길 75-8
청산인 홍석재

[시세반값 초급매 물건들입니다]

- 유동로타리 35미터대로변코너 꼬마빌딩/상속분 땡처리 주차4대/매2억5,900(미니커피,제과,꽃집,선물코너최적)
- 유동 모텔5층건물 룸20개주차4 급매3억2,000(사무실용도최적)
- 송정동 역출구150미터 초역세권 상업지 2차선전 대106평 평당300총가3억1,800(구옥있음)식당,사옥,다가구용최적
- 광주역대로변 광장코너 다이아몬드 땅93평 급매11억
- 매곡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대로변 코너 대311평 급매평당650
- 북동 대로변코너 횡단보도앞 상업지대188평 5층빌딩 감정기35억 급처분가 29억/재개발입주권3개는 덤입니다

[교환]

상가·모텔·주택·땅 교환합니다(웃돈도 줍니다)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재단법인 무안향토건축문화재단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재단법인 무안향토건축문화재단 2026년 5월 20일 이사회 의결로 해산되어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재단 채권자들에게 대하여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5일
재단법인 무안향토건축문화재단 청산인 대표

1. 신고대상자 : “재단법인 무안향토건축문화재단”에 받을 채권이 있는 모든 채권자
2. 신고기간 : 2026. 6. 5. ~ 8. 8.
3. 신고처 : 재단법인 무안향토건축문화재단 청산인 대표 (전남 무안군 무안읍 민성길 130, 무안비행문화센터 2층/문화예술과)
4. 신고방법 : 등기우편 (2026. 8. 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증) * 등기우편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 (061-450-4091)를 주시고, 확인 전화가 없는 경우 우편물 미수취에 대한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출 서류 : 2026. 5. 20. 이전 재단법인 무안향토건축문화재단에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서류 일체와 불입의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 * 채권신고서는 도장 날인 후 원본 제출 (출력본x) * 제출서류 예시 : 계약서, 기발행(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요구 및 납품서 등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6. 주의 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담당자 (061-450-4091)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